

1992

9

가정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요한계시록 3장 14절~12장 12절



“엎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계 1:3)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 현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본서는 계시요, 예언이요, 서신이다. 계시록이란 명칭은 본서의 첫 낱말에서 취해진 것이다. '계시'란 숨겨진 어떤 것이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은 이 책의 성격과 의도를 말한다. 즉 본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 하나님께서 들어내 주신 바를 담고 있다. 그리고 예언이란 미래의 이루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언이란 종말론적인 완성의 빛을 현재에 비취게 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본서는 이 시대에 있을 종말론적인 구원과 악한 세상 권세들에 대한 심판을 확신시키려는 의도를 갖는다. 그리고 동시에 본서는 서신이다. 수신자는 초대 일곱교회이다. 당시 교회는 외적인 박해를 당하여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었다. 이런 상황에 처한 교회에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제시해 줌으로서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려고 했다.

본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원수가 많으나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세력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에 자신의 통치를 확립시키려는 자신의 목적을 꼭 성취시키고 만다는 것이다. 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악의 세력간의 싸움은 극에 달할 것이나 이 와중속에서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다. 결국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복된 교제에 들어갈 것이다.

9월의 기도제목

1.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강건함과 사역
2. 신성종 목사님의 능력있는 목양
3. 부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헌신과 성령충만
4. 전교인 배가전도운동 참여(태신자 작성)
5. 전교회의 기도운동
6. 금오교회지회에 은혜충만

The Family Altar

가정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요한계시록 3장 14절~12장 12절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계 1:3)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 현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1 (화)라오디게아교회

찬송 32. 성경 계 3:14-22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3:14)

라오디게아교회는 말세교회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아멘이시고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이란 힘 혹은 확고부동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멘이신 예수님은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며 확고부동하며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시고 그분의 뜻을 그대로 이루신 주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신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창조자시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은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확고부동하지 못하고 도무지 충성하는 면이 없었습니다. 참된 증인이 없고 위선자들로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교회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썩고 부패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이 확고부동하여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부패되어 있더라도 능력의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새롭게 될 것입니다.

기도 오늘도 참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신성종 담임목사님께 감절의 능력을 주시고 강건함 주옵소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4:1)

문이란 들어가는 길이요 출입의 허락과 금지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열린 문이란 하늘과 땅 사이를 막고 있는 것들을 제하고 하늘의 보좌를 공개하사 하늘나라 비밀과 진리를 보고 깨닫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미 이 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이 문을 연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주님께서는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도 “볼찌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닫혔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보좌를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 뿐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곧 하늘나라의 공개요 부활승천하심이 곧 하늘의 문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이 닫힐 때가 곧 옵니다.

* *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을 예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마 25:10-12). 오늘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준비된 생활을 합시다.

3 (목)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

찬송 337, 성경 계 5:1-5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5:1)

옛날 2세기 전까지만 해도 두루마리 책은 한쪽 면에만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안팎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충분히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아무도 개봉할 수 없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겸손히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더욱 감사한 일은 이 심판의 책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이 열리면 심판이 시작되는데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수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 * * 스가랴 선지자는 “내가 다시 눈을 뜰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5:1-3)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아래 있는 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심판의 오른손에 책을 드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을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5:8)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의인의 기도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의인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의 기도의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 금대점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열납됩니다. 하나님께 열납된 기도를 하는 자마다 심령 속에 기쁨이 솟아나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참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 하며”(16:2-14)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스위치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뵈옵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우리가 슬플 때, 외로울 때, 수치를 받는 순간, 실패의 순간 그리고 위험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위로와 능력을 받게 됩니다. 기도는 교회부흥의 비결입니다. 기도는 우리 가정의 행복의 열쇠입니다.

* *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그때에 사환은 두려워서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한 일은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왕하 6:17). 그 결과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기도하여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기도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소리를 들으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향기로운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 주님 향기로운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소서.

5 (토)경배의 생활

찬송 101, 성경 계 5:11-14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이다」(5:13)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만물이 어린양을 찬양한다는 말씀입니다. 찬양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우주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리가 어린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든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11:6-8)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본문은 “어린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며, 부요와 지혜와 힘과 존귀함이 임할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 * * 점점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험하게 변하면 변할수록 주님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찬송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천사장들과 교회의 대표인 24 장로가 엮드리 경배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엮드리는 삶이 됩시다.

기도 항상 하나님 앞에 엮드리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축복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어린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소리같이 말하되」(6:1)

루터의 회심을 보면 그는 친구와 같이 길을 가다가 벼락이 그 친구에게 내리치므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루터는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벼락이 치지 않고 친구에게는 쳤는가를 생각한 결과 교역자의 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현대인은 번개와 우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전기의 현상이라고만 취급합니다. 하지만 계시록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니 어린양이 일곱 인을 떼실 때 처음에만 우리의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분노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와 동시에 백말을 탄 자가 나타났습니다. 백말을 탄 자는 무엇을 뜻합니까?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전쟁에서 이기려고 활을 당기는 자입니다. 너무 잔인한 승리자입니다. 피를 흘리는 무력을 사용해서 승리를 쟁취하고자 함으로 적그리스도입니다.

- * *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깨어서 경성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화신입니다. 말세에는 이처럼 적그리스도가 먼저 활동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이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6:4)

지구의 핵전쟁은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이미 가진 핵탄만으로 지구 41회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 밖에 없는 지구이므로 한번만 파괴해도 끝날 일을 41회 파괴할 무기를 마련하는 것은 제 정신이 아닙니다. 지금도 지구상에서 날마다 3만 5천명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증오심과 싸움을 위하여 전세계가 쓰는 돈은 연간 5천5백억불이나 됩니다.

사회복지사업과 교육비를 대폭 줄이고 무력 경쟁에 골몰하는 것은 비극을 넘어선 큰 죄악입니다.

어떤 나라는 한 어린이의 교육을 위하여 연간 260불 밖에 안 쓰면서 군인 한 명을 위하여는 1만 6천불을 쓰고 있습니다. 제1차 대전 때 죽은 사람의 수는 약 2천만명이 라고 합니다. 이 2천만명을 죽이는데 4천억 달러의 돈을 썼습니다. 제2차 대전 때는 1차 대전의 3배인 6천만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6천만명을 죽이는데 1조 4천억 달러나 들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면 영국, 미국, 소련의 20만명 이상 되는 각 도시에 전부 대학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 * 오늘 여러가지 박해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생존자들은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하나님 만이 그 박해자들에게 그러한 세력을 허락하실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한도 안에서만 가능할 뿐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 자신들이 야기시켜 놓은 박해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6:5)

경부 고속도로 톨게이트 주변에 대형 저울을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커다란 대형 트럭이 무거운 짐을 많이 싣고 와도 거뜰히 달아볼 수 있습니다. 적재적량을 넘긴 차량은 짐을 덜어놓기 전에는 고속도로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작은 차는 적게, 큰 차는 많이 싣는데 차에 맞추어서 적당하게 실은 차량만 통과하게 합니다. 제 아무리 무거워도 달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품이나 됨됨이의 척도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저울을 구해도 사람의 마음은 달아볼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런 저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조그마한 오차도 없는, 대단히 정밀한 특수 저울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이 이 저울 앞에 서야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 속일 수 없는 저울입니다. 겉모양이나 이름이 아닙니다. 감투나 명예가 아닙니다.

- * * 심판의 날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열매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는 “너는 믿었느냐?”는 질문이 아니라 “너는 실천하였느냐, 아니면 수다장이에 불과했느냐?”는 질문을 들을 것입니다. 진정한 저울은 주님만 가지셨습니다.

「저희가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6: 8)

성경에 계시된 다섯 가지 각각 다른 심판이 있습니다. 그 장소와 시간과 목적도 각각 다르나 공통적인 것은 아담부터 최후의 한 사람까지 예수의 심판을 받는다 사실입니다(요 5: 22).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만민의 죄를 대신하여 단번에 형벌과 심판과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둘째, 믿는 자의 자아 심판, 신자의 공력과(고전 3: 11-15)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통과합니다(고후 5: 10).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과 많은 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 공중재림 때 첫째 부활한 성도가 통과하는 심판입니다.

네째, 예수님 재림 때 지상의 생존민족이 받을 심판(마 25)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부활의 악인들이 받을 백보좌 심판(계 20: 11-15). 이것이 제2의 큰 사망입니다.

* *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최상의 권세와 권위를 지니신 분으로 심판 때에 당신의 권세를 행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충성하는 모든 사람을 사용하여 끝내 그의 목적을 성취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시에 순교자들의 죽음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6:11)

로마의 지하묘소(카타콤)에는 박해를 피하며 숨어 살고 있던 초대 기독교인들 외에 거룩하게 순교당한 순교자들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로마시민의 야유와 욕설 속에서 십자가의 제물로, 또는 야수의 밥이 되어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웃는 얼굴로 그 영혼이 하늘 나라로 갔던 것입니다.

지상에는 그들의 찬양도, 기도도, 미소도, 그들이 흘린 땀방울들도 사라졌지만, 무덤이 지하 묘소의 어느 한적한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초라한 무덤에 남아 있는 묘비명들이 그들의 거룩한 생활과 의로운 죽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몇 가지 묘비명을 소개한다.

프리미쉴스—허다한 고뇌를 겪고 평화롭게 잠들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이 묘비를 세운다.

포울스—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고문을 감수하다가 죽다.

크레멘트—고문으로 죽다. 그녀는 잠들고 있지만 부활할 것이다.

마티스—예수의 이름으로 아드리안 황제 때에 예수를 위해서 그의 피를 흘린 젊은 장교 마티스. 그는 할바를 다 완수하고 평화속에서 죽었다. 그의 벗은 이 비석을 눈물지으며 박해의 두려움을 무릎쓰고 세운다.

아셀스—그리스도와 만나고 잠들다.

비다리야—예수의 평화 속에.

* * 그리스도인의 순교는 거룩한 희생이라 할만큼 고귀합니다. 악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고 충선된 순교자들은 영원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 우리의 거룩한 생활과 의로운 죽음을 통해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소서.

11 (금)여섯째인(최후심판)

찬송 276, 성경 계 6:12-17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6:17)

주님을 기다리는 것, 등을 밝힌 신부의 기다림은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이란 어떤 일이 일어날 때까지 엄지손가락을 만지작 거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하다면 아주 졸립고 지루할 것입니다. 그러나 등이 타고 있는 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잠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등의 불은 언젠가 영광스럽게 오실 주님의 영광의 불빛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력있는 기도자는 어두운 세계를 반짝이는 신호등이며 주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을 보실 수 있고 우리를 쉽게 찾으시게 하려고 우리가 밝힌 등입니다. 모든 기도자는 우리가 깨어 기다리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신호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구속이 가까왔으므로 우리를 깨워 민첩하게 머리를 들게 해 주는 빛입니다.

- * * 최후의 심판은 있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과연 공정한 세상이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아니 가질 수 없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가장 큰 위안이요 힘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불의한 수단으로 재물을 얻고 악한 방법으로 권세를 잡은 사람은 최후의 심판이 가장 큰 두려움이요 고통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세상의 판검사는 뇌물로써 매수되어 판단을 그르치는 일이 있어도 최후의 심판을 맡은 하나님은 매수되는 일이 없으려니와 철두철미 공정무사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든든합니다.

기도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들리는 이 땅에 당신의 영원한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7:3)

여기서 우리는 바람을 붙잡아 두는 기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바람은 예레미야 49장 36~39절과 51장 1절 등을 보면 전쟁을 뜻합니다. “땅이 사방의 바람”이란 온 세상에 일어날 세계대전을 의미한다. 즉 머지않아 일어날 세계대전을 네 천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네 천사는 사방 곧 동서남북에 서서 성도들을 보호하는 사명을 가지고 보초를 서면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천사(성령을 가리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이 천사는 바람을 붙잡는 네 천사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네 천사들에게 외치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바람 즉 전쟁으로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은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엡 1:13).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인을 친다는 뜻은 성도가 성령받아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넘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 요한계시록에는 두 종류의 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살펴본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찍은 인이며(계 7:3), 다른 하나는 적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게 오른손과 이마에 찍는 인입니다(계 13:16). 인의 의미는 ‘소유권’ 또한 ‘소유자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마에 인을 찍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마란 본래 인격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이마에 인을 찍는다는 말은 우리의 인격위에 성령의 인을 친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을 이미에 친다는 것은 택한 자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보호권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참고, 고전 1:22, 엡 1:13).

기도 오늘도 성령을 쫓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13 (주일) 각 지파의 인맞은 자들

찬송 446, 성경 계 7:4-8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일만 이천이요……베냐민 지파중에 인맞은 자가 일만 이천이라」(7:5상, 7:8하)

성도는 성령의 인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되며,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와 관계가 있고 전생애를 하나님의 보호와 방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맞은 자의 수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십사만 사천이며 각 지파가 일만 이천씩이라고 했습니다. 이 숫자가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며, 또한 제한된 숫자를 생각하면서 '왜 하필이면 일만 이천으로 끊었는가'하는 질문과 '더 이상의 숫자가 들어가기에 천국이 좁은가'라는 여타의 질문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 숫자는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를 말하는 것이며 무제한적인 수를 나타내기 위해 상징적인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인 맞은 지파중에서 단지파가 기록되지 않고 요셉의아들 므낫세가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장남으로부터 막내에 이르는 순서대로 기록치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단 지파에서 구원의 백성이 없어서가 아니며 더더군다나 단지파가 적 그리스도가 되어서도 아닙니다. 그 증거로 에스겔 48장 32절과 계시록 21장 12절에는 단문이 있으며, 열두 문 위의 이름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단지파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와 그 축복을 달리하며 모든 지파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정도가 달랐던 것은 깨닫게 합니다.

- * * 십사만 사천의 해석 중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크레다너스의 해석입니다. 십사만 사천이란 하나님의 수인 3에 사람의 수인 4를 곱한 12란 선택수를 두 번 곱한 것에 땅의 완전수인 10을 하나님의 완전수인 3제곱한 것을 곱한 숫자로서 구원받은 모든 교회의 수를 상징합니다. 자기 교파가 십사만 사천이라고 하는 안식교, 여호와와의 증인, 몰몬교 등은 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기도 부교역자들에게 56령충만함 주시고 풍성한 사랑을 교구에 전하게 하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
(7:10)

요한은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을 본 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서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는데 본문에서 제시하는 찬송의 의미를 씹어 봅시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찬송을 했습니다. 흰옷은 신부의 예복이며(계 19:7-8), 승리의 표시며(계 3:5), 예수님의 변화된 옷이며(마 17:2),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고(계 7:14), 믿음으로 산 자들이요(계 18:8), 정절을 지킨 자들이며,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계 14:4). 또한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의 손에는 종려 가지를 들고서 찬송을 했습니다. 종려 가지의 뜻은 기쁜 축하의 표시이며(레 23:40, 요 12:13), 오아시스 즉 희망의 표시입니다(출 15:27). 그들은 큰 소리로 찬송하였습니다.

이 우렁찬 찬송이 울려 퍼질 때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있던 천사들이 그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화답했습니다. 이는 겸손의 뜻이요(막 5:22), 최대의 존경과 두려움의 표시입니다(창 18:2, 민 22:31, 행 10:25). 이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면전에 사는 생활로서 각자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 압니다.

- * * 천사들의 화답송은 일곱 가지 송영을 드리는데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원문 성경으로 보면 각 조목 앞에 정관사가 나온다. 이는 가장 충실하고 깊은 의미에서 이 송영들의 탁월성을 하나님 오직 그분에게만 해당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생애로 살기로 작정한 장로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축복하소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7:7)

장로중 하나가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는지 사도 요한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하면서 다른 장로에게 그 질문의 해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로중 하나가 흰옷 입은 성도를 설명하며 또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저희들의 목자가 되사 주실 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왔으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내리는 축복은 먼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하고,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에게 장막을 치십니다. 그들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합니다. 또한, 목자되신 어린양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 * “어린양이 목자가 되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그 어린양이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한 그분이 이제는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가 되사 그의 양떼를 생명의 근원인 샘으로 이끄셔서 그의 양떼인 우리는 영생과 구원의 물을 마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끊임없는 교제를 갖습니다.

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지라」(8:4)

일곱째 인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일곱 나팔 재앙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즉 일곱 나팔 재앙이란 일곱째 인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일곱째 인을 뿜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짊고요”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반시”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나 그것은 자비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집행 유예 기간을 말하며 그렇게 긴 시일이 아닌 것을 알려준다. 3절에 일곱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는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성육신하시기 이전의 그리스도를 ‘여호와와 천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여호수아들이 만난 천사가 곧 예수님이십니다. 이 ‘다른 천사’가 나타나 일곱 나팔 재앙의 원인을 보여주십니다.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고, 무죄한 성도를 억울하게 했기에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금향로’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말하며 이것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께 상달될 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 *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기도 외에는 상달되는 몇 가지를 살펴 볼까합니다. 고넬료의 구제가 기도와 더불어 상달되었으며(행 10:4), 계 18:5에 “피가 하늘에 사무쳤으며”에서 죄도 상달됩니다. 또한 고생으로 부르짖는 소리도 상달되며(출 2:23), 억울한 핏 소리로 상달됩니다(창 4:10). 성도들은 무역상과도 같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수출되는 것이요 응답과 축복은 수입과도 같이 많은 수출량의 기도는 혹자의 은사와 축복을 기대합니다.

「땅의 삼분의 일이 타서 사워고 수목의 삼분의 일도 타서 사워고 각종 풀도 타서 사워더라」(8:7)

본문에서 첫째나팔 심판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 제일 먼저 창조되었던 식물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가 섞인 불과 우박이 땅에 쏟아졌을 때 수목들의 삼분의 일이 불에 타고 모든 풀들도 불에 태워지고 만 것입니다. 이 광경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산불이 나는 광경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첫나팔이 울렸을 때의 대환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모든 수목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나팔소리와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순간적으로 산천초목이 불에 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성경은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의 모습이 풀과 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권능만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만이 나타날 것입니다.

* *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풀과 같아서 불과 우박에 타서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대환란의 나팔소리를 날마다 듣는 심정으로 주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가장 행복한 것처럼 현혹하는 무리들을 조심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읍시다(시 18:1).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
매 땅의 삼분의 일이 타서 사워고」(8:8)

첫째 나팔 재앙에 이어서 둘째 천사가 나타나 나팔을
부니 또 다른 재앙이 시작됩니다. 둘째 재앙은 바다와
관련된 심판입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첫번째 재앙과
비슷한 내용이 나타납니다(출 7:17).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침몰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큰 군함이
나 항공모함들이 포탄에 맞아 바다에 침몰할 때의 모습
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다의 생물이
삼분의 일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심판
때보다 더 심할 것을 보여준 무서운 재앙이 되는 것입니
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는 심판 때에는 바다의 생물에
는 피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뭏든 이 예언은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가 비슷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34장 3
절).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습 1장 2~3절).

- * * 불신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울 정도로
임하는 것을 말씀들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말세의 징조가 보일 때마다 더욱 각성하여 영적 재무장
을 통해 말세 때를 지혜롭게 이겨나가야 하겠습니까.
나아가서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있다는 사실을 불신자들에
게 증거하여 증인의 사명을 다하여야 하겠습니까.

「세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 일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8:10)

세째 나팔은 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역자 및 지도자들이 세상과 더불어 타락하여 영적 생수를 공급하지 못하고 독있는 물 즉 비진리를 먹이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영혼을 죽게 할 것을 보여준 예언의 말씀입니다.

썩이란 원문의 뜻은 “독초”라는 뜻을 가지면서 구약에 나오는 우상숭배, 재난, 불의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오늘날에 연결시켜 보면 변증법적 유물론(공산주의)이나 급진적 자유주의 신학, 허무주의 사상 등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현대를 사는 많은 영혼들을 죽게 만들고 병들게 하는 독초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물에 대한 심판은 오늘날 가장 큰 문제인 물에 대한 공해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강과 바다는 공장의 폐수와 도시의 생활 폐수로 인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물을 찾다가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 크게 실망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그들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시켜 주신 이적과 반대되는 사건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어진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 * * 가끔 신문에 보면 강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 물 위에 떠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심판 때가 점점 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나는 진리의 말씀이 아닌 독초를 먹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생수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말씀으로 마시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네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삼분의 일과 달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침을 받아」(8:12)

네째 나팔은 하늘에 대하여 내릴 재앙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는 예레미야 4장, 에스겔 37장, 요엘 2장, 아모스 5장 등 여러 부문에서 하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네째 나팔 재앙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째 나팔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애굽에 내린 아홉번째 재앙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에도 천지에 어둠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역사상에 일어났던 하늘에 대한 재앙의 기록들과는 도저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심판이 해, 달, 별의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는 어둠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이 무서운 네번째 심판도 앞으로 닥칠 심판에 비하면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이제 독수리를 통해 세 가지의 재앙이 임하는데 모두가 사람과 관련된 재앙이 시작된다는 데 그 심판의 중함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 * * 오늘날의 세상은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으며 빛이 되어야 할 성도들마저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어 근신하면서 빛의 자녀답게 행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9:1)

본문은 영적인 재앙을 말합니다. 여기서 떨어진 별은 사탄을 말하며 이 사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합니다. 무저갱은 사탄의 임시 처소로써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불못 즉 지옥과는 다릅니다.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제한된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황충은 이단사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공산주의 급진적 자유주의, 신흥종교 사이비집단 등을 말합니다. 이런 황충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황충의 특징은 전쟁을 예비한 말과 같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단사상의 신속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승리하며 미혹하는 지혜가 있고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의 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단의 침투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단사상이 모두다 사탄 자신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 * * 사탄은 성도들을 미혹하여 할 수만 있으면 이단사상에 관심을 두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리에 입각한 사상으로 저들의 계획을 폭로시켜야 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하겠습니까.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러라」(9:15-16)

본문은 여섯째 나팔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은 결박한 네 천사가 놓임을 받을 때 임합니다. 그 결박한 천사는 유브라데에서 놓임을 받습니다. 그들은 이만만의 마병대를 거느립니다. 이만만이라는 숫자는 2억을 말합니다. 이만큼 악한 천사가 많은 마병을 거느립니다. 이들은 전쟁에 참가하여 인류의 삼분의 일을 죽입니다. 실로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선포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앞 금단이란 무엇입니까? 힘과 권능을 말합니다. 금단이란 바로 기도의 제단입니다. 그리고 금단의 네 뿔에서 심판이 선포됩니다. 뿔은 무엇을 말합니까? 힘과 권능을 의미합니다. 네 뿔은 동서남북 사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라는 말씀은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될 것을 말합니다.

- * * 과연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큰 역사를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오직 기도의 향을 끄지 않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와 경건한 생활만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행해집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권적인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마침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담대합시다.

23 (수) 회개치 않는 세대

찬송 332, 성경 계 9:20-21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9:20)

고대 철인 디오게네스는 그 시대가 너무 악하여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대는 더 악합니다. 하늘에 조명탄이라도 쏘아서 의인을 찾을 세대가 되었습니다. 의인이 없는 세대에 홍수가 임했고, 의인 10명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임할 심판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번째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숭배를 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는 것들로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도덕적으로도 큰 악을 행합니다. 살인과 음행과 도적질을 계속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 심판 가운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대에 처한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무서운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범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혹 죄악 중에 있다면 속히 회개합시다. 말세에 처한 우리는 참다운 신앙과 경건한 생활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기도 충현의 모든 청지기들이 하나님께 전생애를 드리는 헌신자들이 되게 하소서.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도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10:1)

본장에서 11장 14절까지는 여섯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일곱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중간에서 삽입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본장에서는 힘센 천사가 지니고 있는 작은 책에 대한 환상을 기록합니다.

1절에 다른 힘센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모습은 이러합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 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서 천사를 묘사하는데 사용된 구름, 무지개, 해, 불기둥 등의 용어는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천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록에서는 종말에 나타날 그리스도를 천사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단지 여섯째 천사가 아닌 다른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 천사는 오른발을 바다에 밟고 왼발은 땅을 밟은 채 사자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이는 그가 전하는 소식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야 하고,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 * 그 천사의 손에 펴 놓인 것은 작은 책이었습니다. 이는 요한이 종말에 되어질 일을 기록한 책은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계획은 너무나 풍성하고 우리에게는 복잡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극히 작은 부분임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하시지 않은 것이나, 계시하셨지만 인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친 상상이나 과장을 말아야 합니다.

25 (금)작은 책을 먹으라

찬송 234, 성경 계 10:5-11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갓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9)

그 천사는 요한에게 이 책을 갓다 먹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명령은 일찌기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고하라”(겔 3:1) 이런 말씀은 선지자와 사도들의 사명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피상적인 말씀이나, 나의 것이 되지 못한 외부적인 말씀으로는 전할 수 없습니다. 자신있게 선포하기 위해서는 책을 가장 깊숙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흔히 하나님의 말씀은 음식에 비유됩니다. 떡이나 우유, 고기 그리고 꿀 등으로 묘사됩니다. 이 말씀은 몸에 흡수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원리가 단지 말씀의 메아리만 울린다면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슬픈 삶과 기쁨, 즐거움과 비통함이 교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스런 약속과 확신을 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날카로운 경고와 심판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과 사명을 함께 전하는 자들입니다. 충성스런 일꾼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합니다. 듣는 자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 * * 하나님의 요한에게 다시 예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사명은 끝나거나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예언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사명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일천 이백육십일을 예언하리라」(11:3)

증인이란 법정적인 단어입니다. 증인이 된 자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면 됩니다. 덧붙이거나 자기의 생각대로 이야기 해서는 안됩니다. 사도 바울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자 즉 만난 자여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여야 하며, 주님께 대하여 보고 들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자여야 함(행 22:14, 15)을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증인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반동안 모진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예언을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인내가 없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복음의 승리를 위하여 비장한 각오와 인내를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 * *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준비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막을 지라도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의 자로 책량하시면서(1, 2절) 더욱 신실하게 더욱 깨끗하게 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신앙적으로 헤이해지기 쉽고 불순종과 배교의 위험이 있는 이 시대에서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세에 더욱 깨어서 경성하고 증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27 (주일)성도의 부활과 승리

찬송 367. 성경 계 11:7-13

「삼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 하더라」(11:11)

본문 10절의 두 선지자는 3절의 두 증인과 동일시되며,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들 교회는 성령의 능력(감람나무)과 복음의 말씀(초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들 교회의 증거기간은 3년반, 즉 1260일이며 그 후에는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네 가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나 완전히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숨겨두시는 교인들이 있으며 동시에 핍박기간은 삼일반으로 짧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가 핍박당하고 성도들이 순교당할 때 핍박자들은 교회의 죽음을 보고 저희들끼리 즐거워 하고 예물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순교한 성도들이 혹은 핍박받던 교회들이 곧 부활하고 소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고전 15:52, 살전 4:16, 17). 그리고 넷째로, 이 때 지진으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져 7,000명이 죽게 되는데, 7은 완전수이며 1000은 많은 수를 의미하며 큰 심판과 피해가 박해자들에게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 * * 성도와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있습니다. 핍박과 순교를 당할 각오를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성도와 교회에 궁극적으로 부활과 승리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세상과 핍박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힘있게 그리고 항상 복음과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합시다.

기도 육호기 선교사(독일)를 통해 독일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게 하소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나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22:15)

본문에 보면, 세째 화가 일곱째 나팔 재앙에서 나타나는데 일곱째 나팔 재앙은 일곱대접 재앙으로서 여기서는 그 서론만 소개됩니다. 그런데 일곱째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찬양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그 내용은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장로의 찬송이 나옵니다. 24장로의 찬송은 크게 네 가지 내용을 갖습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창조주이시며, 섭리주이시며, 심판주가 되십니다. 둘째는,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죽게되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으나,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고 영벌을 받게 됩니다. 셋째는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실뿐만 아니라, 충성한 대로 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넷째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불법과 거짓과 악행으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며,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 * *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요 믿음대로, 행한대로 갚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잘 믿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 가운데서 자기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책임과 직분을 믿음으로 충실하게 감당해서 성령의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일천 이백 육십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12:6)

본문에 나오는 붉은 용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머리는 일곱 적그리스도 국가로 보이며, 열 뿔은 그 후에 일어날 열개의 적그리스도의 국가를 두고 일컫는 예언으로 해석됩니다. 신학자들은 전자의 일곱 개 적그리스도 국가들은 애굽, 앗수르, 바벨론, 메대 파사, 헬라, 로마, 나찌독일 등일 것으로 보며, 후자의 열개 국가들은 E.E.C.에 가입한 나라들로 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붉은 용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 나오는 하늘의 별 3분의 1은 타락된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하나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된 타락된 교역자들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게 보여집니다. 이 붉은 용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두 가지 큰 흉계를 꾸미고 일을 저지르려고 합니다. 하나는 여자가 낳은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여자를 해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자는 신부로 비유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이는 만국을 다스릴 남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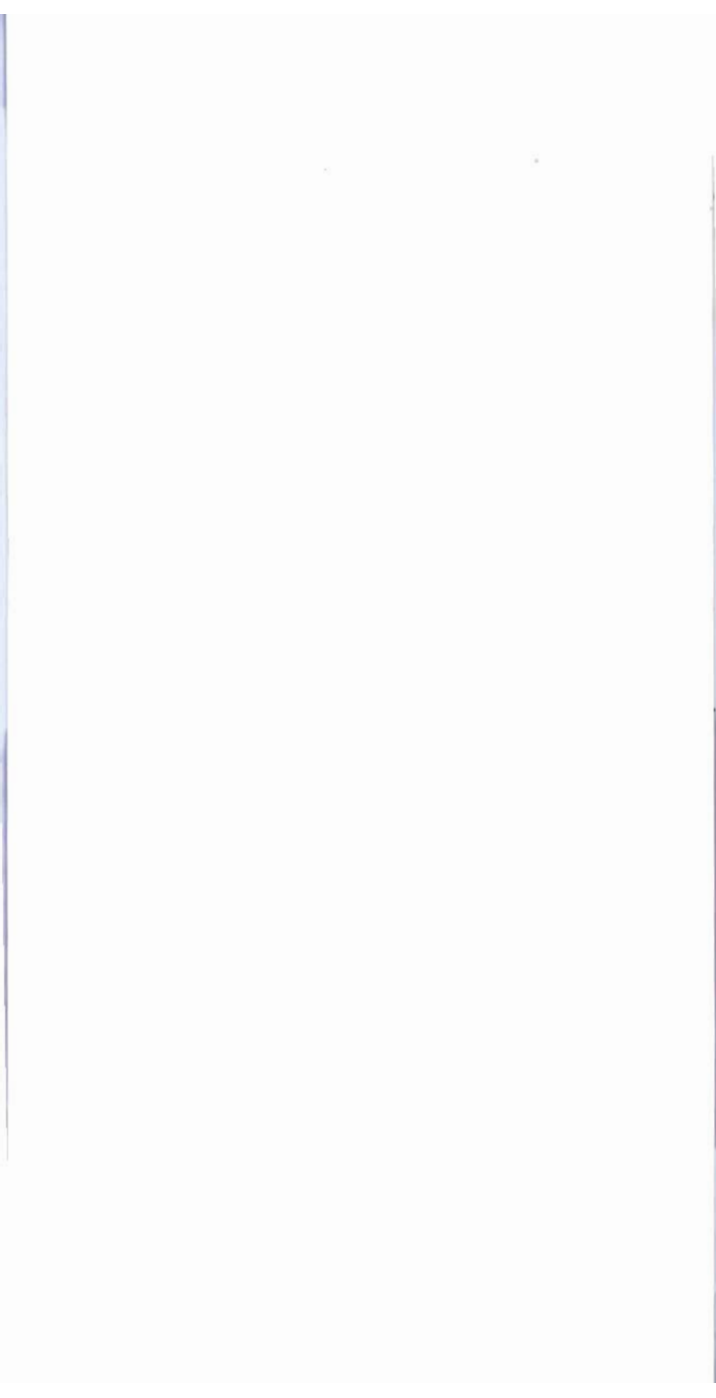
- * * 본문중에서, 중요한 것은 용이 이 아이와 여자를 해하려하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양육이 있어. 그 아이는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고, 여자 즉 교회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 즉 특별한 보호와 관리와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탄의 여러 시험을 끊임없이 받으나 두려워 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양육과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나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12:7-8)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사탄과 그의 사자들과 영적 전쟁을 치루게 되는데 승리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미가엘은 성경에 보면 “군장중의 하나”(단 10:13)이며,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대군(大君)(단 12:1)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는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내어 쫓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제 때가 얼마남지 않는 것을 알고 크게 분내어 땅으로 내려갔다고 하며, 죽이고 속이는 일을 하며, 살육과 파괴하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파괴와 죄와 죽음과 살육과 거짓이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과 세상을 이기고 죽기까지 충성한다는 사실입니다.

- * * 미가엘 군사와 사탄의 군사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충성을 다하는 미가엘 군대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고, 세상은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로 인해 죄악과 거짓과 죽음과 기근으로 허덕이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써 승리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조금도 좌절하거나 굴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붙들고 죽도록 충성할 때 천국에서 면류관 받고 상급을 받게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유재일 선교사(칠레)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사역을 능력있게 하소서.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 1) 찬 송 ... 다같이
- 2) 성경봉독 ... 사회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 그날의 기도와 그달의 기도
- 5) 주 기 도 ... 다같이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